

# 광주테크노파크, 광주 지산학연 거버넌스 총괄 협의체 회의

✎ 김경태 기자 | ⓒ 승인 2024.04.23 16:42

남부경제권 구축 전략 보고·협의체 활성화 방안 모색



광주테크노파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광주 지산학연 거버넌스 총괄 협의체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2일 과학기술동 1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광주 지산학연 거버넌스 총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광주 9대 대표산업별 산학연합의회장, 전남대 등 7개 대학 산학협력단장, 한국광기술원장 등 연구 및 지원기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회의는 지산학연 거버넌스 협의체의 지난해 운영 결과와 올해 계획 보고, 광주연구원 황성웅 연구위원의 '남부경제권(BH 2050)구축 전략 보고'와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갑 부시장은 "올해 광주시정이 지향하는 지점은 더 살기 좋은, 더 즐기기 좋은,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로, 작년까지 눈에 보이는 변화에 집중하면서 씨앗을 심었다면 올해는 그 결실을 거두는 한해"라며 "취업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많이 만들고, 그 기반이 되는 산업과 교육을 키우면서 내실을 다지는 일을 광주 지산학연 거버넌스 협의체와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집 원장은 "광주 지산학연 거버넌스는 지난해 미래차 100만평 산단과 미래자율차 소부장단지 지정때 힘을 합쳐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거버넌스 협의체 정착을 위해 광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부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출범한 광주 지산학연 거버넌스 협의체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역 9대 대표산업 산학연합의회 회장, 8개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구 및 지원기관장 등 55명으로 구성됐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